작지만 강한 존재, 웹 퍼블리셔 노혜진입니다.



노혜진 1996년 (28세/만 26세) | 여

○ (07717) 서울 강서구 강서로29길

핵심역량 " 웹 퍼블리싱, 반응형, 크로스 브라우징

- HTML, CSS, Javascript, jQuery
- 웹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 플랫폼 교육 및 시스템 기술 지원
- 일본어 비즈니스 레벨

학력사항 경력사항 희망연봉 희망근무지/근무형태 포트폴리오 대학교(4년) 졸업 경력 3년 3개월 회사내규에 따름 서울전체 https://jininono.github.io/Hyeji (직전 연봉 : 3,000 만원)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학력 최종학력 | 대학교 <mark>4년</mark>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5.04 ~ 2019.03	졸업	Bunka Gakuen University대학교 (아시아중동) 복장사회학과(服裝社会学科) 3.4 / 4.0		3.4 / 4.0
		논문&졸업작품) MUJI경영전략의 연구		
2012.03 ~ 2015.02	졸업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전문(실업)계 (멀티미디어 마케팅 과)	-

경력 총 3년 3개월 [해외근무] 일본 11개월

근무기간	회사명	부서/직급/직책	지역	연봉	
2021.03 ~ 2022.08 (1년 6개월)	티쿤글로벌	개발본부 / 사원 (팀원) / 1년차	서울	3,000만원	
	단당업무 웹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사용자 문의 응대 및 고객 지원(CS,CX) 워드프레스를 사용한 매뉴얼 제작 회사사유 업직종 전환				
2020.11 ~ 2021.03 (5개월)	프로디지인베스트먼트 경리, 사무보조 / 사원 (팀원) 서울		-		
(3° II =)	당당업무 벤처캐피털 문서 작성 및 사무보조 회사사유 업직종 전환				
2020.07 ~ 2020.11 (5개월)	라벨루나	일본부 전체 담당 / 사원 (팀원)	서울	-	
\ <u></u>	[담당업무] 온라인 쇼핑몰 카페 24 관리 SNS 홍보 및 마케팅				

	퇴사사유 경영악화				
2019.04 ~ 2020.02 (11개월)	MELROSE CO., LTD.	판매부 / 사원 (팀원) / 1년차	일본	2,600,000엔 (약 2,497 만원)	
	당당업무 판매직 회사사유 한국에서의 취업 희망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2023.02	자격증/면허증	웹디자인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합격
2021.02	자격증/면허증	MOS Word Expert	Microsoft	최종합격
2020.06	자격증/면허증	ACA illustrator	ADOBE	최종합격
2020.05	자격증/면허증	ACA Photoshop	ADOBE	최종합격
2014.08	어학시험	(新JLPT	일본어	N1급/PASS
2020.04	자격증/면허증	2종보통운전면허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최종합격

대외활동

기간	구분	기관/장소	내용
2022.08 ~ 2023.02	교육이수내역	SBS아카데미컴퓨터아트학원	반응형 UX/UI 웹 퍼블리셔 과정 수료
2017.03 ~ 2017.03	해외연수	호주	호주 래플스 디자인스쿨 Raffles College of Design and Co mmerce 교환 학생

보유기술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퍼블리싱	
UX/UI 디자인	
GitHub	
Wordpress	
웹표준	
마크업	

HTML5
CSS3
JavaScript
jQuery
MS Word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일본어 / 비즈니스 레벨
4년간의 유학생활과 약 1년간의 취업활동으로 원어민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합니다

포트폴리오/기타문서

파일 구분	파일명
포트폴리오	https://jininono.github.io/HyejinPortfolio/
기타	PDF National.pdf 31.2MB PDF Tomwood.pdf 22MB MOBILE GUIZ.png 389.4KB MOBILE GUIZ.png 1.1MB 일러스트.png 221.3KB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아는 만큼 보인다'

이전 쇼핑몰 플랫폼 회사에서 개발본부 QA 팀 팀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사용자에게 플랫폼 교육과 시스템 문의를 응대하는 업무였습니다. 그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기획자에게 오류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발자 또는 퍼블리셔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시 퍼블리셔가 부족하여 간단한 퍼블리싱 문의도 개발자가 확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보며 간단한 문의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무능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독학으로 웹 표준(HTML/CSS)을 공부하였고 이후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기술 지원은 물론, 개발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학으로 습득하여 부족한 지식임에도 업무의 효율성이 바로 향상되는 것을 느끼며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자마자 여러 학원을 찾아다녔고 비교 끝에 반응형 UX/UI 웹 퍼블리셔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배우는 웹 퍼블리셔 과정을 6개월 만에 습득해야 했기 때문에 매 수업이 끝나면 그날 배운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풀어보고 특히 jQuery 와 Javascript는 비슷한 예제를 구글링으로 찾아 개인 노트에 정리하여 복습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모든 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늦다면 늦은 나이에 전혀 다른 직종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배움이 주는 즐거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배우면 배울수록 넓어져 가는 시야 속에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경험은 지금도 저를 설레게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시장에서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을 즐길 줄 아는 자야말로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과정 및 사회 경험]

'꾸준히 발전하는 노력형'

유난히 옷과 쇼핑을 좋아했던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패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일본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일본어 자격증부터 일본 유학 시험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일본 패션 대학교인 문화 학원 대학(Bunka Gakuen University)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패션을 단순히 의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학이라는 커다란 학문 체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장사회학과 패션 비즈니스 코스를 전공하여 패션을 상품•비즈니스•인간•사회•글로벌•문화•역사 총 7개로 나누어 사회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지식을 연구했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대학교 2학년 때 봄 방학을 이용하여 호주 래플스 디자인학교 (Raffles College of Design and Commerce)에서 2주 동안 교환 학생으로서 활동한 경험입니다. 호주 현지 대학생과 팀이 되어서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만드는 수업으로 문화와 가치관이 전혀 달라도 패션'이라는 공통점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는 일본 의류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도쿄 긴자 최대 규모의 상업시설인 Gina Six (긴자식스)에서 판매 사원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판매와 고객 응대는 물론, 매장 디스플레이(VMD)와 SNS 홍보 등 서비스업과 마케팅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약 5년간의 일본 유학 생활을 마치고 모국인 한국으로 귀국하여 포토샵과 일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페 24를 이용하여 일본몰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벤처캐피털에서는 사무 보조로서 간단한 회계 업무와 문서 작성 능력을 길렀습니다. 웹 퍼블리싱을 준비하기 전 회사였던 쇼핑몰 플랫폼 회사에서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플랫폼을 교육과 CS 업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렀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동안 쉬지않고 발전하려 꾸준히 노력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은 새로운 언어와 라이브러리, 알고리즘에 대한 배움의 연속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하여 직무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웹 퍼블리셔 훈련 중 8주간 총 2개의 웹 사이트를 리디자인(re-design)하는 개인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레퍼런스 사이트를 정하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게 된 날, 폰트 크기부터 줄 간격, 이미지 배치까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모두 강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제 기준에서 괜찮아 보여도 사용자에게는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입장에 맞춘 웹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강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훈련받던 수강생과 주변 친구들의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매사 꼼꼼한 성격으로 여러 번 확인하고 다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작업한 결과, 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불필요한 부분도 피드백을 받으려니 프로젝트가 더디게 진행되었고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니 체력적으로 무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매뉴얼을 정하여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표준을 준수하고 시멘틱 마크업을 작성하여 시간을 단축하였고 지금까지 받은 피드백을 정리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스레 손이 빨라지게 되고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드백을 수용하는 자세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차입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교훈이 되는 것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왜곡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여 현명하게 선택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

'작지만 강한 존재'

귀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꾸준히 발전하는 웹 퍼블리셔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하겠습니다.

첫째, 늘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제작하겠습니다.

웹 접근성을 우선시하고 웹 표준을 준수하여 마크업을 작성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상대 단위와 미디어 쿼리를 활용하여 반응형 웹을 제작하고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보일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항상 고려하겠습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가 되겠습니다.

팀원 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웹 퍼블리셔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한 사고로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의 중간에서 소통을 돕고 협업 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배운 내용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겠습니다.

입사 후 사수분들께 배운 내용들 모두 받아 적기 위하여 수첩을 항시 들고 다닐 것이며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 확인하겠습니다. 실무에서 배운 내용은 물론, 인터넷 강의와 구글링으로 독학한 내용을 개인 노트에 정리하는 등 새로운 언어와 라이브러리에 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